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공영일 주간 김진학 편집장 김중석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서천리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281-6378

제1061호 〈주간〉 1995년 2월 23일 (목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오늘 제43회 학위수여식

학사 3천4백99명, 석사 4백89명, 박사 72명 배출

효율적 참여위한 각 캠퍼스·단대별 졸업식 진행

우리 학교 제43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와 오후2시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에서 각각 거행된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3천4백99명(서울캠퍼스 1천7백60명, 수원캠퍼스 1천7백39명), 박사 72명, 석사 4백89명을 배출한다.

총장상은 차은숙(한의대 한의학과)양과 정완교(공과대 토목학과)군이 받게 되며 학장상은 총17명, 학과별 우등상은 총77명이 받는다.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를 거쳐 진행되는 학위 수여식은 박사, 석사, 학사등 학위 수여식이 있은 후 총장상, 학장상수여가 있고 총장치사, 학원장 축사, 기념품 증정 순으로 진행된다.

오늘 축사에서 공영일총장은 "영광의 학위를 얻게된 졸업생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최선을 다하여 새 시대의 도전과 시련에 맞서 이겨낼 것"을 강조하고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 주역이 되어주길 원하고 있으며 모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길"당부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처음으로 서울·수원 양캠퍼스와 각 단과대학별로 진행됐다. 이는 교수와 졸업생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졸업식 거행을 위해 실시된 것이다.

또한 수원총학생회는 수원캠퍼스에서 졸업식을 치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진행상의 어려움을 예상해 자원봉사를 학교측에 제안했다. 이에 학교측도 교문에서 졸업식장 안내 방문 꽤차량정리, 졸업식 이후 음식점안내 등을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졸업생 김수미(영교4)양은 시원섭섭하다고 졸업소감에 답하며 "무엇보다 내실을 기해 대학생활을 보냈 것"을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또 졸업생 나선삼(한의학4)군은 "신인팔금도에서의 무의촌 진료활동을 가장 뜻깊은 추억으로 간직한다"며 "후배들이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진로를 빨리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간문제로 학관 공사 지연

동연·학생처 사용 주체 대립

학생처와 동아리 연합회는 학생회관 2층 공간사용 주체에 대해 의견대립을 하고 있다.

고황편집위원회와 영자신문사의 2층사용은 이미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잔여공간에 대해서 동연은 다른 동아리와 함께 밥을 쏘고있는 13개의 동아리가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학생처는 동문회나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위한 공동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이다.

학생처는 3천명의 동아리인 뿐만 아니라, 동아리인이 아닌 5천5백명의 학생을 위한 공동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동연회장 이진수(사학 4)군은 27대 총학생회와의 합의에서 2층 공간은 동아리가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학생처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처의 주장은 대학평가인정제의 항목중의 하나인 공동공간에서 학교측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처와 동연간의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 당분간 학생회관 2층 공사는 지연될 전망이다.

수원 ID카드발급 지연

수원중앙도서관의 I.D카드 발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각 과대표를 통해 학생들의 사진을 수합, 방학중에 작업을 완료하여 개강에 맞춰 발급하려했으나 인력의 부족과 기술상의 어려움, 기존에 발급된 서울의 I.D카드를 동시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사서과의 여근환 주임은 "최단시일에 발급을 완료할것이며 발급이 늦어져도 도서관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취업정보실 확장이전

수원캠퍼스 취업정보실이 학생회관 218호실로 개강전에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정보실 내부에 20명규모의 비디오룸을 설치하고 그곳에 단말기10여대와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안히 찾을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범석 취업정보실장은 "그동안 취업정보실이 어디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이 많아 찾는이가 적어 아쉬웠는데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며, 새로 생긴 시설들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청소년 대표자회의 태동" 지난 2월 14일 올림피파크텔에서 '세계 청소년 대표자 회의 준비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UN 창설 50주년과 UN에서 선포한 '청소년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것이다.

레이저공학연에 연구비 지원

인류사회 재건연도 우수판정

한국학술진흥재단

수원캠퍼스 레이저공학연구소와 서울캠퍼스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이 각각 중점지원연구소와 우수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작년 12월 15일 대학부설 연구소 학술연구조성비 사업에 의해 교육부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지원연구소로 선정발표된 레이저연구소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의해 교육부지원과 간접연구경비, 95년 교비연구비중 대응관계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레이저공학연구소는 1차년도(95학년) 3과제 선정에 6천1백만원을 수혜 받게 된다. 레이저공학연구소는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써 NASA를 비롯한 해외유명연구소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실적을 보이는 연구소 중의 하나이다.

한편 우수연구소로 선정된 서울캠퍼스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1과제 선정에 2천2백만원을 수혜받았다.

학술연구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는 연구소는 전국 24개대학 28개연구소이다.

배정기군 서총련 의장 당선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배정기(신방 92)군이 제8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배군은 지난14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총련 3차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고 3월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의장으로 옹립될 예정이다.

한편 서총련 사무실은 1월 15일에 우리학교 학생회관 3층으로 옮겨와 업무를 시작했다.

등록기간 연기 합의

최종등록마감 3월말로 설정

지난 1월말부터 진행된 학교측 실무자와 학생측과의 회의에서 학생회가 제시한 등록기간 연기 요구안을 학교측이 수용함으로써 등록기간을 3월말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교측이 한번의 등록기간을 명시하고 이 기간에 등록을 못할 경우 등록연기원이나 휴학계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협의 후 학교측이 학생들의 주장을 수용해 추가등록기간을 2차는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최종은 3월말까지로 설정했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기간 1차마감'에 대해 학생측은 학기중 1회이상의 등록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측이 학생측에 아무런 통보없이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따라 17일에 가진 학교측과의 협의에서 등록기간을 3차까지 연장하고 사유서 미제출자에 대한 불이익 철회를 요청했고 학교측은 이 사항을 받아들였다.

이것으로 2주간여에 걸친 학생측과 학교측의 등록금협상은 최종등록을 3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상국 기획실 예산과장은 "1차등록마감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이번에 한해 등록기간을 3차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해외 파견 학생 선발원칙 개정

공인 외국어시험 비중 높아져

해외 파견학생 선발원칙이 유학대상국의 주사용 언어가 영어권인 경우에 TOEFL, TOEIC등 공인된 외국어 시험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조정원부총장)는 자체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던 이전의 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 TOEFL성적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 그러나 TOEFL성적 소지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의 TOEFL시험을 치루게 하여 5백50점 이상 TOEFL성적 소지자에게는 20점을 가산한다. 그리고 TOEIC성적 6백점이상 소지자는 20점을 더 얹게 된다.

국교외 박중근 행정과장은 "기존에는 관련 교수에게 출제를 의뢰해 시험을 치뤘으나 미국 호주지역의 외국대학에서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공인된 TOEFL성적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호주의 빅토리아대학에 학점교류학생으로 간 김남윤(정경대경영 92)군은 "처음 파견 학생선발에 신청을 할때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야 파견학교가 공인된 TOEFL성적을 요구,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에서 다시 시험을 봐야할 형편이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학문화 빨치는 대중문화'

교시탑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학교는 신입생들과 졸업생들로 북적거린다. 떠나가는 졸업생에겐 '끝났다'라는 말이 어울리기도 전에 사회진출의 의미가 담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우선이 되어 버린다. 졸업생의 뒷모습과 신입생의 앞모습이 교문에서 교차하는 순간 우리는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닌 '힘찬 출발'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힘찬 출발을 축하 하기위해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9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관했다. 1천여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영상세대에 맞게 대중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기가수의 '콘서트'(?)를 엿볼 수 있어 달라진 세태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단대의 참여없이 행사를 단독 기획한 총학생회는 '신입생 학교생활, 사고, 문화의 다양성 제공과 신입생의 행사 참여 유도, 학생·교수·학교가 함께하는 행사'로 그 의미를 강조했다. 행사의 내용 또한 다양한 문화의 접목, 행사의 흥미 유발, 원만한 진행(시간준수), 축하 행사의 쇼(SHOW)분위기 연출등 각양각색으로 꾸몄다고 한다. 총학생회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특이할 만한 행사(신입생과 총학생회간부의 농구시합, 연예인 초청 공연)로 이루어졌으나 대학만이 가질수 있는 비판적 기능의 문화행사 기획이 잘 이루어지 않아 많은 재학생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아야 했다. 특히 이러한 비난과 질책을 한꼼으로 받아야만 했던 공연진행자는 초청연예인에게 돌기 민망한 요구를 해 신입생들로부터 '우우'하는 야유를 들어야 했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다수의 재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평가에도 다소 비판을 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대중적 문화라 일컫는 것들은 신입생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반면 신입생이 접하지 못한 대학만이 가지는 비판적 기능의 문화(대학문화)가 대중문화에 가려 빛을 발하지는 못했다. 이로인해 신입생들에게 '대학문화는 곧 대중문화'라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았나 염려스러울 뿐이다.

〈한승오 기자〉

□단과 대학별 졸업식장 안내□

그대! 영원한 경희인으로 살아가라

대학원합동 크라운 콘서트홀 오전 11시

문리과대학 도서관 시청각실 오전 11시

법과대학 도서관 시청각실 오후 2시

정경대학 크라운 콘서트홀 오후 2시

사범대학 복지회관 강당 오전 11시

가정대학 복지회관 강당 오후 2시

의과대학 의료원 기숙사 강당 오전 11시

한의과대학 의료원 기숙사 강당 오후 2시

치과대학 치대 강당 오전 11시

약학대학 치대 강당 오후 2시

음악대학 음대 리사이틀홀 오후 2시

체육대학 체대 무용실기실 오전 11시

외국어대학 체과대 시청각실 오후 2시

사회과학대학 사과대 시청각실 오전 11시

자연과학대학 공대 시청각실 오후 2시

공과대학 공대 시청각실 오전 11시

산업대학 산업대 시청각실 오전 11시

체육과학대학 체과대 시청각실 오전 11시